



## 라자로 로사 비올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라자로 로사 비올란 Lazaro Rosa Violan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 고작 여덟 살 때부터 미술 대학에 청강을 하러 다녔다고 하니 말이다. 이후 꾸준한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그의 디자인적 감각은 더욱 발전한다. 호텔 풀리처 Hotel Pulitzer, 레스토랑 엘 나시오날 El Nacional 등 수없이 많은 핫 플레이스가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 영화 속 도피처, H10 큐빅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각 형태의 방들을 보니 영화 <큐브 Cube>가 떠오른다. 게다가 이 호텔 이름도 '큐빅 Cubik'이다. 스페인의 웬만한 멋진 곳은 모두 라자로 로사 비올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H10 큐빅 호텔의 근사한 인테리어를 탄생시킨 스페인의 대표 디자이너다. 감각적인 그의 손길 아래 탄생한 이 호텔은 람블라스 거리 Ramblas Street, 고딕지구 El Barrio Gotic 등과 같은 필수 여행 코스와 인접한 위치뿐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함 등으로 유명해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두말할 것 없이 멋진 디자인을 꼽는다. 미래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외관과 로비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거대한 책장, 라자로 로사 비올란만의 센스가 느껴지는 감각적인 가구들까지. 공상과학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이곳에 있노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일상을 잊고자 훌쩍 떠나려는 당신에게 이곳은 로맨스 혹은 SF, 그 어떤 장르의 영화로라도 기꺼이 대입시켜줄 완벽한 도피처가 될 것이다.

1 거대한 책장이 들어선 호텔의 로비. 2 레스토랑 전경. 3 성당을 뜻하는 'Cathedral' 스위트룸.